

O.Döring, W, Das Lebenswerk I. Kant, 김용정 역, 「칸트철학 이해의 길」, 새말출판사, 1980.

<양서>

Aune, Burce, Kant's Theory of Moral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translated & indexed by ford Lewis Bathles, The Philadelphia press.

Clark, Gordon H., Three Types Religious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7.

Douma, J. Christian Morals and Ethics, translated by John P. Elliott and Andrew Pol. isbn 0-88756-024-5.

Edwards, Paul, The Encyclopidia of Philosophy (Vol. 4), N.Y.: Macmillan Pub. Co. Kant, Immanuel, Groundwork of the Metaphysis of Morals, tr. by H.J. Paton, N.Y.: Harper & Row. pub., 1964.

Knat, Immanuel,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tr. by M. Greene, Theodore and Hudson, Hoyt, of "The philosophy of Kant", ed. by J. Friedrich, Carl, N.Y.: Random House Inc., 1977.

Kröner, Stephan, fundamental Questions of Philosophy, Australia: Penguin Univ. Books, 1973 (reprinted).

Van Til, Cornelius,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55.

<논문>

김기석, "칸트의 인간관", 「사상계」, 1953. 4.

김성린, Kant에 있어서의 그의 實在性에 관한 研究, 충북대, 1984.

손명현, "칸트", 「사상계」, 1957. 9.

이규호, "칸트의 理性宗教", 「기독교사상」, 1963. 4.

이정호, Kant에 있어서의 自律의 문제와 根本惡, 서울대: 철학논구 제 9집, 1981.

전영갑, I. Kant의 義務論에 대한 考察, 부산산업대: 논문 제 4집 2권 (자연과학 예술편), 1983. 3.

지원용, "칸트의 宗教觀", 「기독교 사상」, 1964. 3.

비유 주석*

신 득 일
신학대학원 졸

복음서에는 비유라는 항목에 속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길거나 혹은 짧은 이야기를 복음서에 비유라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비유라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 어떤 페리코프(pericop)***가 역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유는 복음서에 있는 다른 문체와는 다르다. 즉 그것이 비록 일상적인 일이나 상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는 사실을 말하거나 설명하는 기사와는 다르게 종교적 진리에 관한 드러나 있는(uncovered) 교훈과도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한 자신의 말이 땅 위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독자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관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다.

주님의 교훈 가운데서 비유의 방대하고, 특이한 또 독자적인 위치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최근 백년 동안 많은 양의 문헌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상이한 근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의 양상이 발전되었고 비유 주석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때문에 비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1. 최근에 일어난 문제의 양상

비유의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이 몇가지 문제점이 지난 백년 동안에 대단

*이 글은 kampen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J. Van Bruggen의 책 *Het lexen van de bijbel*, (Kampen: J.H. kok, 1981) 가운데 있는 "Exegese van gelijkenissen"이란 소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번역했다. 특별히 고재수(N.H.Gootjes)교수께서 감수해 주셨고 황창기 교수께서 지도하시는 "계시역사"과목 중에 이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셨다.

***책 전체에서 드러난 한 부분이란 뜻 (역자주)

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왔다.

a. 알레고리와 구분

구교에서는 한 비유속에서 여러가지 상이한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그 당시도 비유의 적용에 대한 한계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석가들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의 가루 서 말을 삼위일체로 이해했을 때 다른 주석가들은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용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세기에도, 이를 테면, 16세기의 개혁자 칼빈이나 예수회의 말도나투스(Maldonatus)와 같은 신학자들은 비유의 요소를 적용시킬 때에 절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주석의 출발점은 비유가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실제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그 견해를 달리했다.

19세기에 성경 비평의 영향아래 예수의 원래 설교에 대한 아주 새로운 견해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그 사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서도 예수의 원래 설교는 기독교적이지 아니라 단지 사랑과 은혜의 교훈으로 이루어 졌다는 생각이 적합하다. 비유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비밀의 보고(寶庫)로 보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의 단순한 이야기로 보았다. 주로 율리히(A. Jülicher, 1888, 1899)를 현대의 비유 주석의 아버지로 일컫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판 쿠투펠트(C.E. Van Koetsveld, 1868)의 연구에 의존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존스(G.V. Jones)는 거의 1세기 뒤에 말하기를 판 쿠투펠트가 독일어로만 글을 썼더라면, 이 사람은 적어도 율리히만큼 아주 잘 알았을텐데 라고 말했다.*

율리히의 지속적인 장점으로 여겨진 것은 그가 옛날 주석의 방법적 과오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다. 즉 비유가 단지 상술된 은유의 형태가 되고자 하는 반면에 그들은 비유를 일종의 알레고리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가지 적용방법에 반대해서 한가지 적용만을 써야 한다('one-point-approach')는 것이다.

20세기의 60년대에 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난 것은 존스, 피아(D.O. Via)와 귀트게만스(E.Güttgemanns)가 이 방향으로 더욱 더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이다. 비유가 된 하나의 은유에서 비롯된 예술적인 상술(elaboration)이라고 할 때 그들에 의하면 비유에 예술작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때 존스와 피아는 예술작품의 자율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즉 비유는 독립

적인 실체인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적용이 없는 자율설이라 할 수 있다. ('no-point-approach'). 예술작품은 설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뿐이다.

비유는 도덕이나 신학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술형태를 통하여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효과를 발할 뿐이다. 비유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교훈을 준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이 비유에 있어서 재차(우리가 실존주의 방식으로 비유에서 투영된) 풍유적(allegorical) 주석을 할 여지를 준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우리가 여기서 내리려고 하는 결론을 최근의 주석이 비유란 말을 다소 전문적인 의미 즉, 알레고리(풍유)가 아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그 입장이 비유와 지시된 의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용어가 그렇게 정의됨으로써 대체로 비유의 영역은 제한된다.

b. 문맥으로부터의 고립

성경 비평의 영향아래 많은 신학자들은 비유가 복음서 가운데 위치해 있는 문맥과 더이상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본다. 그 문맥은 더 후기의 문헌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므로 비유는 문맥에서부터 분리시켜 놓았다. 현대 주석에서 비유는 고아가 되어있다. 동시에 그 학자들은 비유가 지니는 팔레스틴 색채와 신빙성있는 표현때문에 비유를 오래되고 진짜일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 여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추적하는 자는 특히 비유에 대단한 흥미를 갖게 된다.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비유들을 적어도 그 핵심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신의 말(ipsissima verba)로 본다. 즉 복음서에서 예수께 속한 말중에 바로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장 가깝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문맥으로부터의 고립은 종종 재구성되거나 가정된 예수의 초상 혹은 "원 복음"(oer-Kerygma)이라는 문맥속에 재배치함으로써 보상된다.

c. 본문의 분할

전승과 편집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으로 복음서가 일어난 것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과 연결되어서, 종종 우리에게 전달된 형태와 원래의 형태 사이를 구별한다. 본래의 형태는 결론지은 문장, 설명하는 삽입 부분, 문맥과 관련시키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비유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에다 이차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여김으로써 본래의 형태를 재건하고 있다. 다 잘라내고 몸통만 남아있는 이 비유는 현대 주석가가 생각하는 대로 비유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에 물론 잘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난도질 당한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 형식과 비교하면 새로운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본학의 차원에서 볼 때 비유는 나머지 복음서의 부분보다 사본상의 차이가 더 크지 않기 때문이다.

*G.V. Jones, The Art and Truth of the Parables. A study in their Literany Form and Modern Inter pretation. London 1964, 14.

비유에 대한 Van koetsveld의 작품에 대해서 보고 Jülicher의 다른 작품가운데 이 작품에 나타난 평가에 대한 그의 작품을 보라. A.J. Onstenk, "Ik behoer bij mezel." Cornelis Elisa van Koetsveld. Diss utrecht, Assen 1973, 103-119.

d. 기능의 재기술

우리는 복음서에서 구주께서 친히 기적하신 비유의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분은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의 본을 보여 주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귀절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이후의 신학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비유의 기능은 재기술되어야 한다. 윌리허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비유는 온유한 선생의 교훈에 첨가된 아름다운 설명체의 이야기가 된다. 현대신학에서는 신(新)해석학으로 인해 비유는 또 다른 기능을 부여 받는다. 즉 비유는 더이상 예증이 아니라 언어발생(Sprachgeschehen: Fuchs의 문하생인 Linnemann의 표현)이다. 즉, 비유에는 우리에게 노래 가사가 주어지지 않고 노래 불러야 할 하나의 멜로디만 남아있다. 오늘날 이 멜로디는 새로이 언어발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현대적 기법으로 재기술되어야 한다. 아이히홀츠(Eichholz)는 비유가 계속적으로 재현실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 신약 신학에서의 결합

20세기에는 고대 교회의 신학의 발전사에서 고립된 여러 비유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다. 다드(C. H. Dodd)는 비유를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으로 생각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했다. 예레마아스는 그 강조점을 전환시켰다. 즉 그것은 그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결정을 하도록 하는 몇 가지 촉진제이다.

지난 백여년 간의 여러 주석과 다른 주석적인 문헌을 읽어볼 때 이 새로운 문제점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가 단지 성경비평적 편견에 의존해 있다(특히, b에서 e까지). 해석학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과 문맥의 순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비유는 복음서에 나타난 형식을 따라 그리고 주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문맥가운데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실에 대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작해야 한다. 비유의 형태와 그것이 가능한 해석학적인 결과에 대한 질문(a 단락)은 앞으로 꼭 살펴되어야 한다.

2. 비유의 형태

비유라는 말이 알레고리라는 말과는 첨예하게 구분된다면, 이 두 낱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딪혀 온다. 즉 비교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포인트를 지니는데, 그것은 넓게 표현된 하나의 은유이다. 반면에 알레고리는 비교하는 여러가지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알레고리가 비유로 표현된 일종의 설교나 교훈이기 때문인 것이다.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말에다 억지

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a. 비유(parabolé)와 풍유(allégoria)라는 헬라어는 각기 분명한 차이가 없이 상호간에 “비교에 대한 단 한가지 혹은 더 많은 포인트”라는 차이는 없다*

b. 화란어로서 풍유(allégoria)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풍유란 의인화된 표현을 가리킬 수 있다(예를들어 큰 낫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또는 풍유란 인간적인 것들을 비인간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이야기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짜 존재하는 사람을 동물로 제시할 수 있다.) 비유란 말이 그런 것을 가리킬 수 없으므로 비유는 풍유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 즉, 비유속의 내용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c. 레위스(C.S. Lewis)는 어떻게 순수한 알레고리가 점진적으로 생겼는가를 보여 주었다. 즉, “계몽주의”시대에 비로소 고대신화를 의인화한 알레고리로 해석했으니 말이다(비너스는 사랑으로, 아폴로는 조화로 해석하는 것 등). 레위스가 바로 지적하기로는, 사람들은 자주 이러한 발전을 플라톤에게서 나타나는, 세상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충분하리만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즉 플라톤의 이론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진짜 실재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필로(Philo)의 주석이 알레고리로 불리우는 것은 그렇게 정당한 것이 아니다. 필로는 아브라함을 가상적으로 의인화된, 추상적인 덕으로 풀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역사적 사건을 무의미한 과거 이상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그 속에 훨씬 더 높고 더 보편적인 실재가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가지 의미로 향하는 이 발전을 알레고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의 내용을 여러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을 “필로식의 알레고리”로 거절될 수도 없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필로와도 알레고리와도 아무관계가 없다. 열두살된 아이로의 어린 딸을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필로와 관련될 수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비유에 있어서 그 비유적 표

*“정말 이론은 비유와 풍유를 분명하게 구별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때때로 뒤섞인다”. F. Hauck, parabolē in Th WV 741-759, 특히 7743, 34ff.

*C.S. Lewi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London 1936, 4-11. 고대의 알레고리도 알고 싶으면 다음 책을 비교해 보자. H.J. Klawck, Allegorie und Allegorese in synoptischen Gleichnistexten Milnster, 1978, 32-115.

현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또 문제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d. 신약성경에서 비유(parabolè)란 알레고리적이 아니고 은유적인 이야기를 위한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일반적인 헬라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비교 예증, 유추(히9:9, 11:19)”로 말이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그것이 잠언이나 격언을 가리킨다. ‘은유적 표현’이란 의미에서 ‘고정된 은유적 표현’(격언)이란 의미로 발전한 것은 70인 역에서 비유(parabolè)란 말이 종종 잠언(masjaal)의 번역으로 사용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70인 역에 가장 기술적으로 결정된 masjaal은 parabolè로 사용되지 않고 paroimia로 사용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parabolè가 수수께끼의 격언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 parabolè도 독특한 문학적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비유를 말하라”는 표현이 자주 “비유로 말하는 것”이란 표현과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즉, 강조점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방법에 있지 선택하는 형태(산문이나 시)에 있지 않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아주 분명하다(poos homioosoomen ten basileion tou theou, è en tini autèn parabolèi thoomen?) 여기서 parabolè는 “은유, 은유적 표현”을 의미한다. 둘째 이유는 비유로 묘사된 본문들을 단순한 표현(마15:11, 15)에서부터 길고 복잡한 이야기(눅19:11-27)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약에서는 비유로 언급되는 많은 본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화란어로 “은유”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종류중에서 형태상 일치성을 이루는 유일한 점은 비유는 항상 은유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 론

신약에서 좀더 넓게 묘사된 비유가 나오는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적 표현이 있는 형태와 구별되어 있었거나 구별된 특별한 형태를 소개하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비유를 주석할 때 해석 규칙을 소위 특별한 형태에서 뽑아내어서도 안된다. 즉 이것은 알레고리가 아니라 비유이다. 비유적 표현의 빈도와 확신은 주께서 계셨고 또 활동하시던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해석해야 한다.

3.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

제자들이 이후에도 잘 기억할 수 있는 어느 날(마13:1, 막4: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날 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결

과로 자제들이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마13:10)라고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은 은유를 사용하는 그 자체는 아닌데 말이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한 요한의 교훈과 ‘모래위에 세운 집과 반석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이미 비유와 은유용법과 결부되어 나오기도 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가운데서 이 은유가 parabolè로 표현되어 있다고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것이 비유라고 할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대개 비유란 표현이나 은유란 단어를 비유 용법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누가(5:36)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이전에 발견하는 일종의 은유를(즉, 마9:16-17, 막2:21-22에서) 비유(parabolè)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라. 그래서 비유(parabolai)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상황에서 결코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의 동기와 이때로부터 마태와 마가가 비유를 자주 일부러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새로운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한 비유만을 사용하는 데 있다. 비유 자체가 아니라 비유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일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내용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은유나 비유는 산상설교에서와 같이 평범한 교훈으로 놓여있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그 무리에게 사용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더우기 그날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날이다. (마13:3) 예수께서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만을 사용함으로써 즉, 비유가 하나의 비유적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또 다른 비유적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비유는 더 이상 설교속의 예화가 아니다. 그것은 설교 자체이다. 마치 영화 스크린의 자막 설명이 없어지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 많이 확대된 비유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갑자기 많이 눈에 뜨인다. ‘비유’란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왜 다른 교수방법은 없어지고 단지 비교하는 것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했다. 주님의 답변은 그의 이 새로운 교수방법은 신앙과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혀준다.

a. 신앙의 표출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제자들이(마13:11은 비유를 가리키지 않고 비유 이전의 단계를 지적한다.), 예수께서 그들을 도우신 후에 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그들의 받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비유적 교훈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이루어진다. (마13:16, 17, 51)

b. 불신앙의 표출은 요한과 주님의 설교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설명이 없는 비유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음을 지금 깨달음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미 외인이 된 그들은(막4:11) 오직 비

유만을 듣는데 이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막 4:12의 hina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mēpote 때문에 '~하기 위하여'도 번역되어야만 한다. 그 결과로 이처럼 그들이 깨닫지 않은 범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면전에서 실행하기 위함이다(막 4:12, 마13:12-15).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의 교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리데르보스(H.N. Ridderbos)는 비유의 형태를 도래한 그리고 아직도 감추어진 왕국의 실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왕국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아니라 그의 청중의 상황이 비유의 동기가 되는데, 그 비유는 진보한 사람에게는 부요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 이중적인 효과는 신비스러운 은어(隱語)사용에 있지는 않다. 즉, 비유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끔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했다(마21:45, 눅16:14) 그러나 그들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비유를 실제로 경건한 충고나 격려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두 종류의 결과는 청중의 두 부류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이한 상태는 바로 그 당시 설명없는 비유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결 론

우리가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본래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을 비교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지닌 확대된 비유적 표현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주님께서서는 '많은 것'을 또 그중에는 '새로운 것' 뿐만 아니라 '옛 것도'(마13:3,51) 비유로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 교훈을 추구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론은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실 때 얼마나 많은 비유의 요소가 자체의 의미가 있는 요소로 나오는가를 주의할 때 확정된다(마13:18-23, 37-43). 문제는 지금 우리가 비유의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주석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범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느냐는 것이다.

*H.Ridderbos, De Komst von het koninkrijk. Jesus prediking volgens de synoptische evangeliën. Kampen 1950, 123: "이 모든 것 중에 특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그와 동일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계시의 특별한 양상을 드러낸다. 그 왕국은 와 있고 메시아는 계시되었으나 이것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특별한 양상과 복음 전파의 방법은 일치하는데.....".

4. 해석규칙

비유가 아닌 본문안에 예화로써 나오는 은유 해석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비유 경우에, 비유를 설명하는 문맥이 없으므로 인하여 몇가지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다.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교훈들을 요약하시는 사실은 비유속에 의도하신 교훈이 어떻게 한정되었는가를 직면케 한다.

4.1 비유 즉 그 이야기에 주의하라

a. 비유 자체를 파악하라. 누룩이 어떤 작용을 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또 사용된 누룩은 가루 서말의 양에 어떻게 비례하는가? 동양식 부엌을 스스로 생각해 보라. 또한 그 밭도 잊지말라. 즉, 이 비유속의 zisanion 이라고 하는 가라지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 당시의 상속법이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아들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청구하는 것이 전례없이 무례한 것인가? 아니면 타당한 일인가? 또한 증서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눅16:6)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증서를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었는가? 교훈이 비유로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그 비유를 음미하라. 함축된 의미가 있는가?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나오는데 왜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나? 또 구약에 나오는 은유와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들을 구약과 역지로 관련지어서는 안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인 포도원은 선지자의 말을 공명판으로 사용한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c. 비유 이야기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자. 비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유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의 실제와 또한 유사한가?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보통의 일이지만 11시가 되어서 일꾼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평범한 이야기 속에는 터무니없는 요소이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일상생활에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씨가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써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씨뿌리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상하지 않은가? 그때 그 비유는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닌가?

d. 비유를 그것이 의도하는 바와 비교하라. 하늘나라를 어떤 왕과 비교할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누룩과 비교할 때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누가 감히 하나님나라를 커피산속에 퍼지는 크림과 비교하겠는가? 그러나 누룩에 대한 비유에 익숙치 못할 때 처음의 청중들은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4.2. 비유 즉 그 이야기가 방향을 지시하는 요소를 살펴보자

- a. 아래 귀절과 같은 비유에 속하는 요소에 주의하라.
 —입문적 표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결론적인 표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직접적인 문맥속에 명백한 지시(눅18: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것을 비유로……”)
 —문맥속의 함축적인 지시(눅 15:11-32, 탕자의 비유인데 이것은 창기와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실에 대한 성가심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불평하는 말아들의 요소가 이 비유에서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연속된 교훈으로서 한 비유가 나온다.)
- b. 이 비유를 말한 시대와 그들은 복음서에서 주어졌던 장소에 주의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그순간 그리스도의 사역의 국면과 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4.3 비유의 가르침을 깨달도록 배우라

- a. 먼저 자신이 천국의 제자가 되어라(마13:52). 단지 그렇다면 성경지식을 새것과 옛것을 그 공간에서 내어오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 b.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했던 요소에서 교훈을 추구하라(4.1. c-d단원을 보라.) 비유나 그 기사를 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와 예상할 수 있는 요소에서 교훈을 찾지 말라. ‘누룩’이 감추어져 있는 ‘가루’에 대한 언급(마13:33)은 예수께서 그 비유 가운데서 누룩에 일어나는 바를 취하고자 한다는 사실때문에 필수적이다. ‘가루’는 이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다 누룩이 어떻게 되는가를 덧붙이신 것은 보통의 것이 아니다. 즉, 그 분은 역시 그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말한다면 충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상한 일은 ‘감추다’는 동사가 사용된 것이다. 반죽에서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는다. 또한 ‘서말’이라고 지시한 것은 독립적인 요소인데 특히 양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 비유는 천국이 사람들이 고대하는,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지닐 것이지만 이 목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달성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나라는 특출하게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고 더우기 눈에 감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는 바로 이렇게 달성되는데 존경받지 못하던 예수께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세상을 이기실 것으로 말이다.
- c.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해석하라.
 —비유의 방향(앞의 4.2. 단원을 보라)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비유로 하지 않는 교훈.

분명히 그 범위를 사도들의 교훈에 까지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유안에서 그분이 친히 아셨고 또 그 제자들이 아직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은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유월절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사도들을 통하여 종결된 그리고 명백한 계시속에서(특히 서신서들) 주님의 교훈이 교회를 위하여 완전하게 발전되었다. 비유가 계속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해한 그 정도에 까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비유는 사도들이 가졌던 완전한 통찰력(부분적으로 비유때문에 일어난 것임)으로 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교부들이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두가지 성례(기름과 포도주,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한 암시를 본다면 이 해석이 맞지않는 이유는 이 암시가 그 비유를 들을 때 제자들의 지식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니고 그와같은 적용은 비유가 의도하는 적용 범위를 벗어나 있고 또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게 의해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위한 사랑의 치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다. 주인이 더디오기 때문에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는 청지기는 확실히, 오순절 이후 시대에 남용과 거룩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면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은 잘못 사용하는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비유로 보인다. 여기서 직분자인 베드로의 질문으로 인한(눅12:41)이 비유는 분명히 교회에서 책임을 맡을 자들을 향한 것이다. 유월절 이전에 말씀하신 비유는 나중에 유다서와 두아디라에 보낸 서신에서 비유없이 인접된 같은 주제를 이미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의 시대에 제자들의 전망으로부터 이해해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그리스도의 예견으로부터 이해해야 된다. 이 맨 마지막 규칙은 모든 비유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5. 비유의 용법

사도들의 서신에서 여러 은유의 용법을 보지만 비유로만 나오는 교훈을 볼수 없다. 비유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는가?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 단지 임시변통의 버팀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불신앙을 나타내는 기능을 지닐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비유를 그 저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도를 따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유는 하나의 비유답게 전달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다시 비유가 되기 위하여 (상투어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다시 눈에 드러나게끔 말할!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유는 비유가 아닌 교훈과 관련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선교와 복음 전도는 전적인 비유로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수한 비유적인 언어로만 말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심판주로서 말씀 하셨다.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설교하지만 다른 즉 좀 더 낮은 직분을 가지고서 설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유대교 회당과 결별할 때 그가 절교하는 말을 하듯이 비유를 받지 않고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교회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조점은 이미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의 형태로서는 비유의 기능에 두어야 한다.

이 기능 안에서 그 형태의 특징은 지시하는 비의 종합적 방법인데 그로 말미암아 기억력과 감동이 강하게 자극받는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은 스테인글래스가 자신의 해석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유리조각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햇빛이 이 창문을 통하여 항상 들어오게끔 배려하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교회안에서는 세상의 빛이 하늘 높이 계실때, 오래된 유리창으로 들어온 색깔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동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C.E. van Koetsveld, *De Gelijkenissen van den Zaligmaker*. I-II. Utrecht [1868].
 A. Jülicher, *Die Gleichnistrden Jesu* I-II. Tübingen 1888-1899 (1910).
 C.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London 1936.
 J.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Göttingen 1962(1947).
 E.Linnemann, *Gleichnisse Jesu. Einführung und Auslegung*. Göttingen 1961.
 G.V. Jones, *The Art and Truth of the Parables. A Study in their Literary Form and Modern Interpretation*, London 1964.
 D.O. Via, *The Parables. Their Literar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1967. (Duitse vertaling met nawoord van E. Güttgemanns: München 1970).
 G.Eichholz, *Gleichnisse der Evangelien. From, Überlieferung, Auslegung*. Neukirchen 1971.
 Rudolf Pesch & Reinhard Kratz, *So liest man synoptisch. Anleitung und Kommentar zum Studium der synoptischen Evagelien*. IV-V: Gleichnisse und Bildreden. Frankfurt am Main 1978.

새 언약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

—예레미야 31:31-34을 중심으로—

정 왕 식
 신학대학원졸
 현 내송교회시무

— 목 차 —

• 서 론	3. 하나님에 대한 지식
• 본 론	4. 죄의 용서
I. 옛 언약의 파괴	B. 새로운 면
II. 새 언약의 필요성	IV. 새 언약의 증보자
III. 새 언약의 두 국면	V. 새 언약과 성령
A. 연속적인 면	• 결 론
1. 율법	참고문헌
2. 임마누엘의 원리	

서 론

성경해석에 있어서 언약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통일성있는 구속적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부터 34절에 나타난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본 논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렘31:31-34에 나타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을 두 번에 걸쳐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ἡ καινὴ διαθήκη)이니 곧

1) 히8:8-12, 10:16-17.